



우후죽순 정치 현수막... '시아 공해' 괴롭다

**광주시, 합동 점검 10일만에 2만5천570건 정비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제약 없어 무분별 난립
'자치사무임에도 중앙정부가 통제' 개선 절실**

광주시 곳곳에 난립한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이른바 '시아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이 허가나 신고, 금지,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장소를 따지지 않는 무차별 게시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5개 자치구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을 통해 ▲동구 5천367건 ▲서구 5천365건 ▲남구 3천849건 ▲북구 5천140건 ▲광산구 6천180건 등 총 2

만5천570건을 철거했다.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시위·연락처 등 ▲정당 현수막 중 법령·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다. 올해 1-5월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동구 34건 ▲서구 72건 ▲남구 44건 ▲북구 113건 ▲광산구 88건 등 총 331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합동 점검에서도 철거된 정당 현수막이 상

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날 오전 상무지구 일대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사회단체, 아파트분양 광고 등 교차로를 중심으로 적게는 3-4개, 많은 곳은 5-6개의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돼 있었다. 이 현수막들은 대부분 나무와 나무 사이, 보행자 신호등에 설치돼 있었다. 다만, 불과 수 일전까지만 해도 사거리마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던 것과 달리 정비를 통해 상당 부분 정비된 모습이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2022년 12월11일) 때문이다.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하고 준수하면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2차, 2023년 5월8일)에는 ▲신호

기, 도로 표지,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이 시정 요구 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 정당의 한 관계자는 "거대 정당이 아닌 이상 소수 정당의 경우 현수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규정에 맞게 게시하고 있고 게시기간도 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수막은 당협위원장 명의로만 게시할 수 있는데 당협위원장이 아닌 이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들이 불법"이라며

"이러한 이유가 정치 현수막들이 난립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지역에 시달리고 있는 19개 정당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상업 광고는 물론,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라면 근절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방침이다. ▶2면에 계속 /박성강기자



장마 '방수포' 점검 정마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던 27일 오후 광주 북구청 공동주택과 직원들이 관내 운영동의 한 건설공사장 급경사지에서 현장 관계자와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수포 점검을 하고 있다. /김에리기자

전남 골프장 13곳 새로 생긴다

**4곳 토지 매입 진행·9곳 관계기관 협의 단계
도, 인·허가 단축 등 지원... '골프 메카' 도약**

전남지역에 골프장 13곳이 새로 들어선다. 기존 37개소를 포함해 총 50개소가 넘는 골프장이 운영을 본격화하면 전남이 골프 스포츠 메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27일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겨울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골프 스포츠 중심지 조성을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수립, 내수 진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과 실질적 골프 대중화, 지역주민과 사업 시행자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인·허가 권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조직(T/F) 구성·운영 ▲행정절차 개선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또 ▲주민·시행자·허가권자 간 협의체 구성 및 상생방안 마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타 지역 방문객 유치 등을 위한 이용요금 인하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은 총 13개소다. 이중 4개소는 투자자가 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 나머지 9개소는 도 및 시·군에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초기 단계인 입지 검토부터 컨설팅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투자자·자치단체장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방지한다. 이밖에 개발사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골프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조원으로 스포츠산업(80조원) 중 단일종목 최대인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MZ세대, 여성 중심의 신규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514개소며 전남에선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 비해 산림 비율(55.6%, 전국 평균 62.7%)이 낮아 골프장 건설에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수요 맞춤형 골프장을 조기에 건설, 골프장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각종 전지훈련·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해역 적조 7월말 발생 전망

도, 예방 중심 대책... 피해 최소화 총력
올해 적조가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7월 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이 올해 평년 대비 수온이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고수온은 7월 초순, 적조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7월 하순 주의보가 발령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최근 '2023년 적조·고수온 대응 종합대책'으로 ▲예방 중심적 대응 체계 확립 ▲예찰·예보 기반시설 확충 ▲민·관 합동 현장 대응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제도 개선 및 기술 보급 등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적조·고수온 대책위원회'를 지난 20일 도청에서 개최해 '2023년 적조·고수온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제장비 구축, 예찰·예보 기반시설 확충, 민·관 합동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재정기자

Today
광주FC 직원, 유흥주점서 '법카' 6면
장갑수와함께·동의보감둘레길 14면
고진영 '159주' 최장 세계랭킹 1위 16면

- 제10회 -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은 유구한 문학의 산실인 호남 향토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가사문학을 부흥해 지역의 문학미대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및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0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문인 발굴과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전국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마감 : 2023년 8월 31일 마감
- 입상자 발표 : 2023년 9월 8일(금)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 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사안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 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최·주관 (주) 광주광역시문인협회 · 광주매일신문